



- 2018年度 -

新 年 辭



존경하는 3만8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4백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바라며, 새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무술년(戊戌年)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개는 충직과 헌신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또한 흉사로부터 집을 지키고, ‘오수의 개’ 이야기에서처럼 주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능이 높고 사람을 잘 따라서 인명 구조, 장애인 생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고 반려동물로도 가장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어 본받을 점이 많은 동물이라 하겠습니다.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했고, 기상이변은 날로 예측이 어려워져 지난해 7월 급작스럽게 쏟아 부은 집중호우는 우리 지역을 비롯해 인근 청주, 진천, 괴산까지 많은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급변하는 환경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강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으로 수많은 성과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및 준공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어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926억원 규모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사업시작 이후 12년 동안 끌어왔던 증평 에듀팜특구 사업에 있어서도 도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 내면서 지난 12월 착공해 10년 묵은 체증을 해소했습니다.

종합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군 개척 이래 최초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국무총리 표창 2회와 함께 20여회가 넘는 수상실적을 거뒀습니다.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특히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청렴(清廉)과 애민(愛民)을 핵심가치로 평가하는 다산목민대상 본상 수상과 함께 반부패청렴대상을 수상하는 등 청백리의 명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¹⁾ 도내 1위(전국 9위), 지역안전지수²⁾ 3년 연속 1등급(3년 연속 도내 1위), 교통사고 안전지수³⁾ 도내 1위(전국 8위) 등의 지표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또한 군 개칭 이후 처음으로 2천억원을 돌파했고 공모에서도 농림축산식품에서 실시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총 17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자녀수(전국평균 1.2, 충북평균 1.4, 증평군 1.8명)

2) 지역안전지수: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평가해 1~5등급으로 계량화한 수치

3) 교통사고 안전지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평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나라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국내 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적인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친 이스라엘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중동국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파장이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굳건한 의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4백여 공직자는 올 한 해 증평균의 더 큰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그럼 2018년 8대 비전과 함께 올해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서민, 성장을 핵심과제로

살 맛 나는 지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의 경제현실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에 대한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행복잡(job)는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생산적 일손 봉사 등 공공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금융우대, 청년근로자 정규직 채용 지원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를 비롯한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CCTV 등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시장 내 다목적 광장 문화행사 장보기 사진 인증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통시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홍보와 유통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양적성장을 위해서는 증평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빠른 시일 안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제3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듀팜특구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4D 융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지난 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나 재난·재해 대응체계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과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는 동시에 재난·재해 관련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실전과 같은 상황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이 재해예방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금곡, 안골 등 소하천 정비사업과 함께 지방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을 지속 추진해 생활 안전용 카메라(CCTV)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이 하나의 생활양식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안전홍보 이벤트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식중독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식점 이용불편 365부르미 운영을 통해 식재료와 위생에 관한 소비자 신고 시 신속히 출동·대응하는 등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희망과 행복이 있는

체감도 높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계층·세대별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복지수요에 맞게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입체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활동지원, 노인돌봄 및 독거노인응급돌봄 서비스, 경로당 급식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생활이동지원 등과 함께 현재 토지와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장애인회관이 빠른 시일 내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비롯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에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부담금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꿈꾸는 미래, 감동 있는 내일을 여는
즐거운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교육의 수준 향상과 도·농 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사업과 비전투어,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영어 캠프 등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7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왔던 군민장학기금은 지난해 목표 초과달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 외국어 등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과정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군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독서 프로그램과 별밤 시네마, 아고라 옥상콘서트, 이동 천문대 등을 운영해 교육과 놀이가 함께하는 즐거운 학습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여유와 활력, 전통이 공존하는

풍성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에 대해 지속적인 발굴과 복원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 불교유적인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한 규명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득신 문학관을 건립해 지역 문화인물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단군전 주변 공원 조성을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 들노래 농경체험 연꽃마을을 조성해 박물관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들노래축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2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고 있는 증평인삼골 축제는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소득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생활 속 작은 체육 공간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부권 휴양관광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좌구산 휴양랜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전국 최고의 휴양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스마트 농업, 젊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ICT융합 재배시설, 재배환경 원격제어 장치, 농작업 드론 등 스마트 농업기술 교육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통해 미래 농업의 도입과 정착을 앞당기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보급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지원 등 적극적인 귀농·귀촌지원으로 지역 인구가 늘고 젊은 농업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유기 농자재를 지원해 유기농업을 육성하고 농기계 보급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대학, 현장기술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재해 보험, 사료첨가제, 낙농도우미, 우량종돈개량 등을 지원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선제적 차단방역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을 통해 산림을 보전하고, 임도·등산로 정비, 산림 부산물 활용 사업 등 산림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일곱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마무리 하고, 보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생태하천 사후관리, 도랑살리기 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관리를 통해 수질 및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초등학교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실시해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계도 강화 및 인접지역 축산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 악취 자동

시료채취 시스템 설치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설치지원,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사용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린리더육성, 친환경 문화 확산운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및 계도·단속 강화, 취약지역 야간 단속반 운영, 주민과 함께 하는 국토대청결 활동 등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함 보급, 농촌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등 폐자원 재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을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마을길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실시하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커뮤니티센터 구축,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 안전 보행 및 통학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평읍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가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확충과 도로시설물의 예방적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과 나대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남차~증천 간 도로개설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하고 감성적인 행정으로 고품질 섬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와 음악이 있는 행복민원실을 조성하고 고객만족도조사와 체계적인 민원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화요일과 토요일 일과 시간 외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예방중심의 감사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해 나가고,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축하기념품과 지역 내 시설 이용 쿠폰 제공, 전입 군인 및 대학생에 대한 상품권 지원 등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개선 운동으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전입 및 출산장려를 통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면 우리 군의 인구가 4만을 넘어 5만 시대로 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증평군이 개칭한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로 시작했던 우리 군은 개칭 당시 작은 면적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열악한 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왔고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그 결과 이제는 대한민국 지자체 가운데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지역을 배우기 위해 찾아다녀야 했다면 이제는 여러 지자체에서 증평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우수한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군 개청 당시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우리 군민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여건만 생각하기 보다는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을 생각하며,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할 것이 없고, 증평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증평군은 지금 정주여건 향상과 꾸준한 인구증가, 높은 출산율 등을 보이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도내에서 가장 젊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어 잠재력 또한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작가 노아 벤샤는 그가 쓴 ‘빵장수 야곱’이란 책에서 “늘 자라고 있는 것은 결코 늙지 않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증평을 꿈꾸지 않는다면, 미래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고 그 때부터 우리는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구 4만을 넘어 5만 시대 준비!

언제까지나 늙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증평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역시 2018년 황금 개의 해를
맞아 주민의 동반자로서 주민을 섬기는 충직한 마음
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신 모든 일
다 이루시고,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증 평 군 수 홍 성 열